

통계로 본 선거: 데이터로 본 4.7 보궐선거 결과의 의미

202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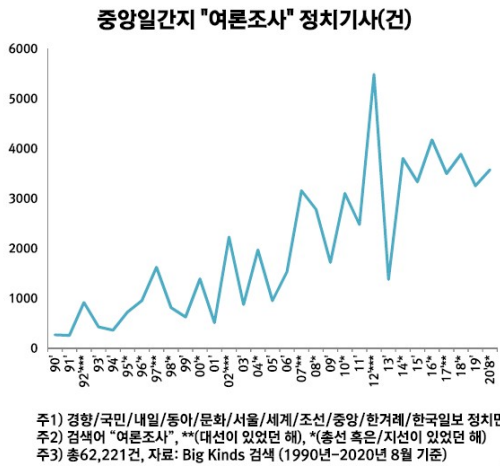
정한울(한국리서치 리서치 디자이너)

1. 외주 민주주의, 서베이 민주주의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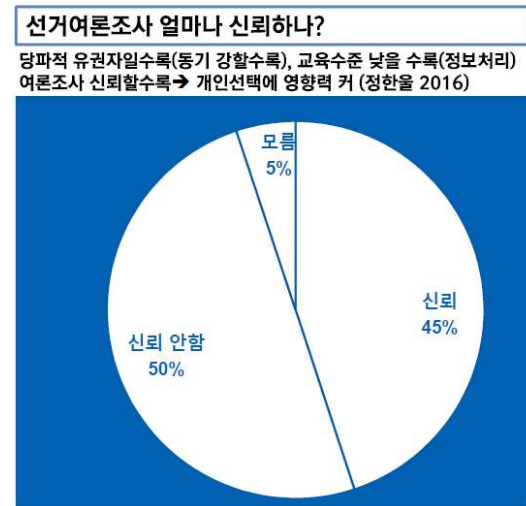
■ 딜레마: 커지는 영향력, 낮아지는 신뢰도(정한울 2016)

- 커지는 영향력 무엇이 문제인가? 주요 정당 공직자 후보 선출, 후보단일화 수단(안-오 단 일화), 정치적 의사결정 수단화
 - ✓ 정당-대중 간 갈등, 조정, 타협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서베이로 대체, 정치적 논쟁이 방법론 논쟁으로 대체
 - ✓ 민주주의의 외주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비전과 권력 운용 논쟁이 아닌 여론조사 문항과 샘플링 방법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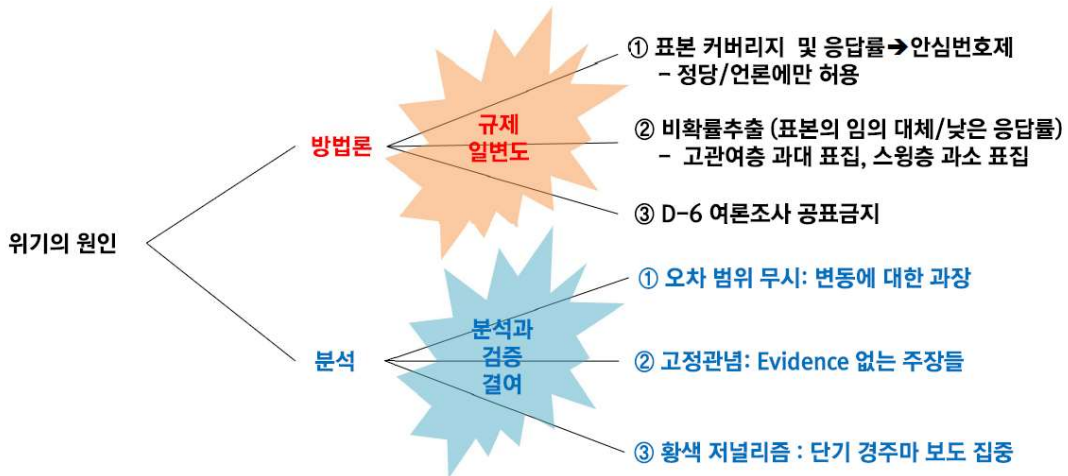
[그림1] 커지는 영향력(KINDS 검색)



[그림2] 신뢰도 (한국리서치.2019.9월)



- 여론조사의 신뢰도 위기: 방법론적 한계와 외주민주주의의 문제



■ 방법론적 접근법의 한계: 주로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 “여론조사는 온도계, 정밀 검진도구 아니다”: 서베이 데이터는 오차를 가진 정보라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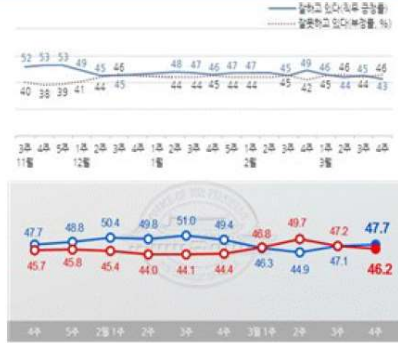
를 무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 커진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보도 규제: 경주마식 보도를 지양하자면서, 경주마식 보도를 위한 방법론적 규제에 집중(가중값 배율, 샘플 수, 선거보도 사전신고/사전 등록)

(사례1) 국정평가 1% 차이, 변동 vs. 오차

- A사
“문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치”(3월 2주차)
“문 대통령 지지를 **반등 45%**”(3월 3주차)
- B사.
“靑·與 3주 연속 하락, 집권 후 최저치, 韓 4주 연속 상승, 文 45%”(3월 2주차)
“**중도 결집, 동반 상승 文 48%**”(3월 3주차)
- C사.
“2019년 초부터 **찬반 균형 유지**”(1월-현재)

실제 데이터 변동



■ 간과되어 온 문제: 정작 서베이 데이터의 부적절한 분석과 과잉해석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 (사례1) 4.7 보궐선거: 100명도 안되는 샘플 결과를 대서특필

[그림3] “부산에서 여야 지지를 역전” (1.27)

(사례1) 부산 보궐선거, 정당지지율-가덕도 오판

“이미 끝난 선거? 부산이 달아온다” (한겨레 21/01/27)
 ...민주당에 싸늘했던 부산 민심이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도 관련 포인트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의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5%, 국민의힘은 29.9%로 나타났다.”

민주, 김영춘 이어 변성한 출사표
 가덕 신공항 띄워 당 지지율 역전
 이낙연 부산방문 “특별법 2월 저리”
 국민의힘, 박형준 독주체제 뚜렷
 일각 “중앙당서 찬밥 취급” 비판
 김중민 “경제가 중요...곧 내려갈 것”

문 대통령, 가덕도 방문(2.27)
 김종민 비대위원장, 한일해저터널 공약(2.7)

한국리얼미터 지난 23~25일(2월 4주) 부산·울산·경남 18세 이상 152명을 조사한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7.9%포인트)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27%)을 8%포인트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달엔 국민의힘에 최대 14%포인트까지 뒤졌던 민주당이 가덕도 바람을 타고 이달 초 지지율 역전에 성공한 뒤 계속 앞서나가고 있다

https://www.chosun.com › assembly › 2021/02/27
 與, 대선까지 노려 TK-PK 갈라치기... 부산 지지율 급등 - 조선일보
 2021. 2. 27.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은 영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 '총남권 매가시트는 대한민국 성공...

전국 1,000명, 부/울/경 152명, 오차범위 7.9%p=> 부산 샘플은 100명도 되지 않는 조사결과(100명일 때 오차한계 ±9.8%p)

[그림4] 실제 부산시민 투표 결정요인(%)

부산 시장 선거 이슈(3.20-21, 부산 800명 조사 오차한계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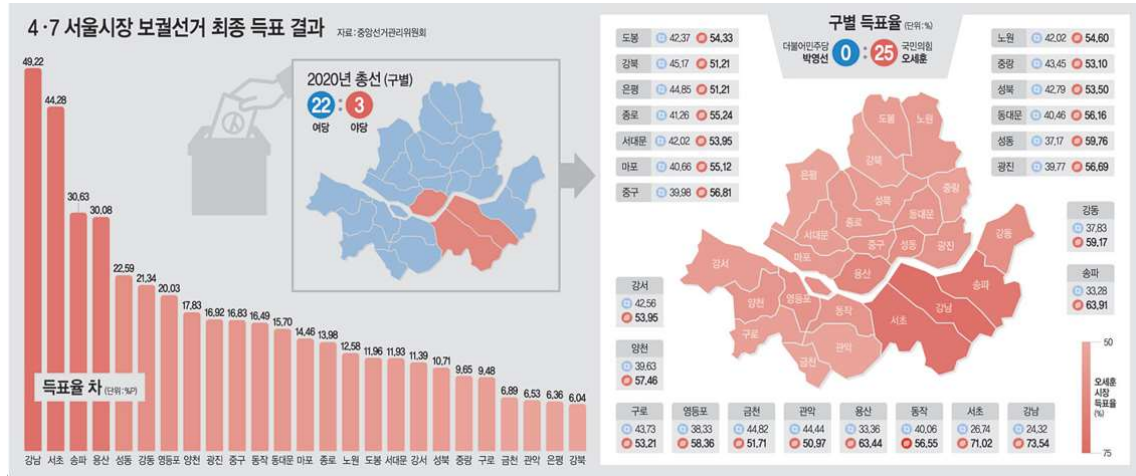


KBS · 한국리서치 보궐선거 조사(3.20-21)

- (사례2) 2020년 총선 “샤이 보수”, 2021년 보궐선거 “샤이 진보” 기댄 네가티브 전략
 - ✓ 2020년 미래통합당, “샤이보수” 내세워 지지층 결집 위한 막말/네가티브 전략에 올인
 -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샤이진보” 내세워 “내곡동 비리 의혹”에 올인
 - ➔ “숨은 표(샤이 보수/샤이 진보)” 아닌 해당 정당에 실망한 “이탈표”
 - ➔ 네가티브에 실망해서 이탈한 층 대상으로 네가티브에 올인, 선거 참패로 귀결
- (사례3) 매주 쏟아지는 조사➔ 단기변동에 초점, 수치 밑바닥에 깔린 여론구조 변화 간과
 - ✓ 보궐선거 직후 “이대남” 향한 구애
 - ✓ 여당 내 패인 논쟁: “조국 이슈 때문(반조국)” vs “부동산 때문(친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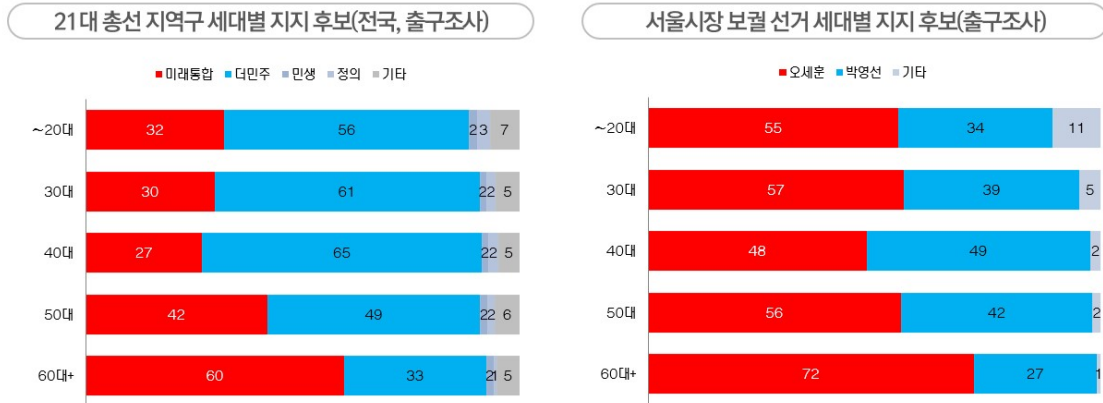
2. 4.7 재보궐 선거 결과: 서울·부산 국민의힘 압승

① 지역: 서울 전 지역구에서 오세훈 후보 승리



② 세대균열 변화: 특정 세대 아닌 전 세대에서 이탈, 즉 지지층도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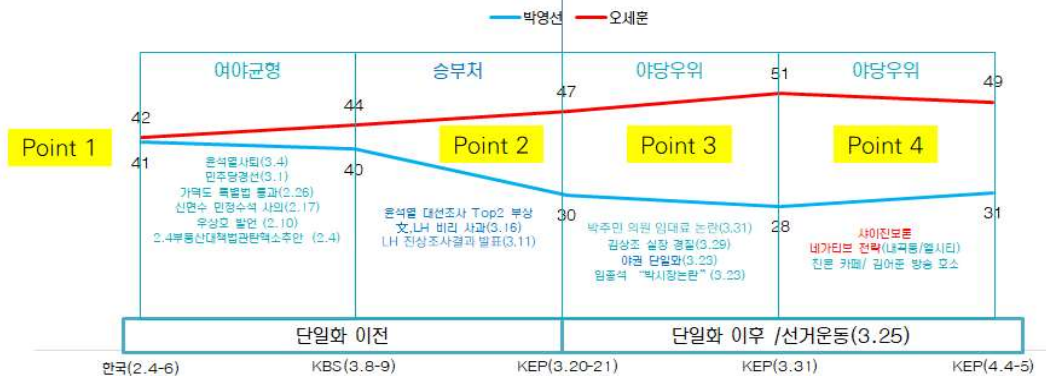
■ 보수(60대+)의 결집(총선) → 20/50 이탈(2020하반기) → 3040(보궐선거) 이탈



③ 4.7 보궐선거 평가의 지점

■ 언제 누가 이탈했다? 1단계 (총선~선거 전) → 2단계 (보궐선거 과정) 이탈

- Point 1 : 전국 정권심판구도의 형성, 진보 vs. 중도(20대 남/PK)+보수 연합(탄핵정치연합의 해체)
- Point 2 : 주변부 지지층 의 이탈(30/50대/서울) + 보수의 결집
- Point 3-4: 핵심 지지층(20대여자/40대)의이탈 + 진보이탈은 투표 포기, 중도층 국힘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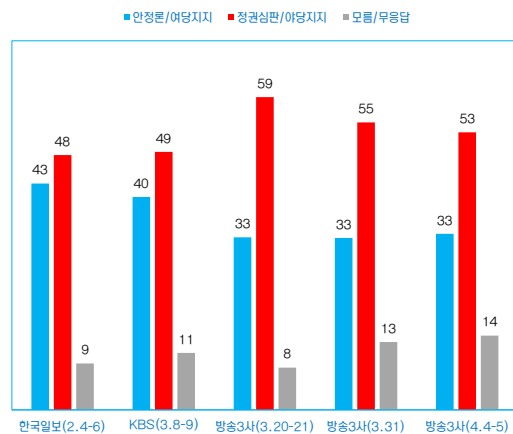
■ 누가, 언제 이탈했나?

- 전국에서의 정권심판론, 3월 중순 이후 서울시장 심판론으로 전환
 - ✓ 1단계: 중도/보수층에서 문 정부 부정 평가 역전, 심판론 강화
 - ✓ 2단계: 진보층에서 박영선 후보지지 급락, 중도층에서 오후보 지지율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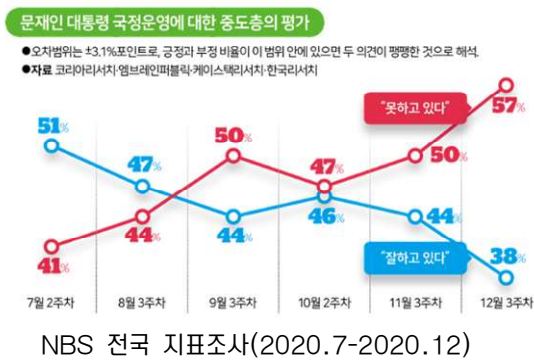
[그림5] 전국 정권심판론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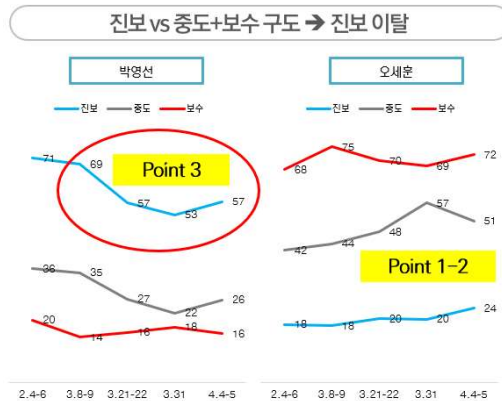
[그림6] 서울시장 보궐선거 심판론(%)



[그림7] 1단계 중도층 이탈 (2020. 10월-12월)



[그림8] 2단계: 진보층 이탈(202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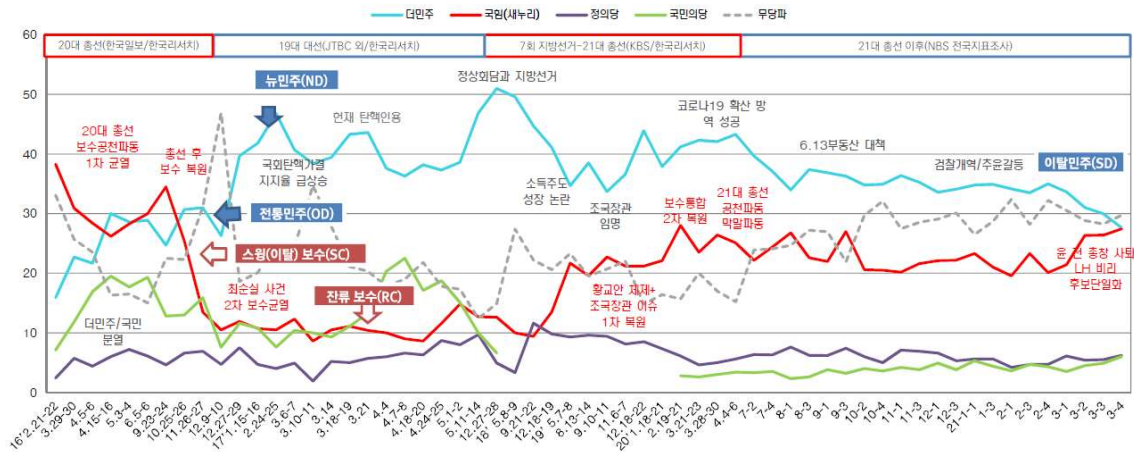


3. 4.7 재보궐 선거의 의미 : “탄핵정치연합”의 해체

- ① 탄핵정치연합의 등장(2016-2020): 보수우위의 정치구도에서 진보우위의 정치구도로
- 보수우위 구도의 의미: 보수층이 다수라는 의미가 아닌 ‘중도+보수’ vs ‘진보’ 구도라는 의미
- 탄핵정치연합의 구도의 등장
 - 17년 대선 일탈선거 → 18 지선, 20년 총선을 거치며 ‘중도+진보’ vs ‘보수’ 구도로 재편
 - 잔류보수(RC)와 이탈보수(SC)의 분화: 기존 ‘콘크리트 보수층’의 2/3가 보수당 지지철회
 - ➔ 2/3는 무당파(demobilization), 1/3은 민주당 지지(conversion)로
 - ➔ 잔류보수는 강경보수(‘태극기 부대’), 탄핵찬성한 중도보수층의 복귀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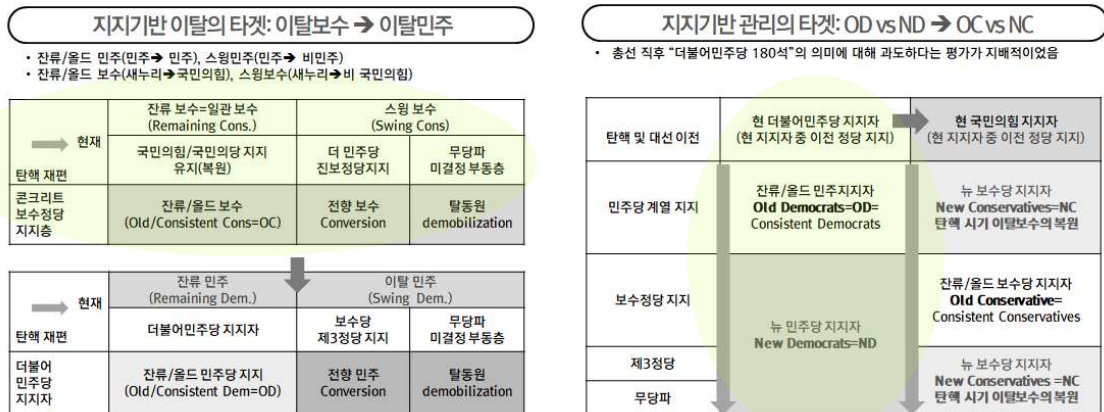
- 민주당 우위 구도의 등장: 진보성향의 올드민주(OD)+ 중도/보수성향의 뉴민주(ND)연합
 - ➔ 진보/개혁 우선의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보수성향의 뉴민주당 지지층 연합 유지가 탄핵구도 유지 여부를 결정
- 그러나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는 아니다(정한울·강우창 2017; 강원택 2019)

[그림9] 콘크리트 보수우위구도 해체 및 탄핵정치연합의 등장, 그리고 해체(2016-2012년)



자료: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DB

[그림10] 탄핵정치연합의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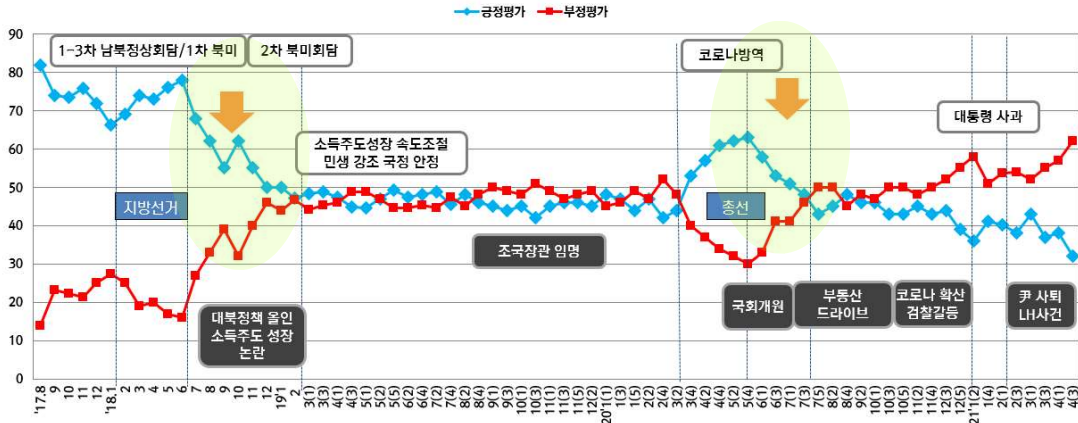


② 탄핵정치연합 해체(2020년 총선 이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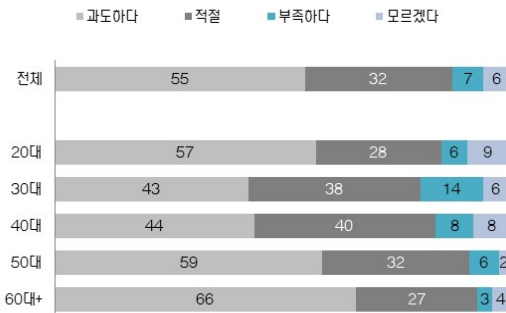
■ 원인진단: “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압승이후 바로 국정 지지율 하락이 반복되었나”

-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여당 압승 직후부터 지지율 급락
 - ✓ 여당 압승 시킨 민심에 대한 오판: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위임이었나?
- 부동산 정책 이전: 민생의제 소홀, 검찰/언론 개혁 의제에 집중
 - ✓ 2018년 지선 이후 민생요구 → 문 정부, 대북정책 올인/소득주도성장론으로 안정론 확산
 - ✓ 2020년 총선 이후 안정희구 → 코로나로 상승, 그러나 “부동산 6.13 정책” 이전인, 5월부터 급락
- 더불어민주당 독주에 대한 우려, 개혁보다 안정 희구 심리
 - ✓ 총선 직후 조사 “여당, 180석 의석 과도하다” 55%
 - ✓ 총선 후 국정방향, “안정 우선하라” 70% vs. “개혁 우선하라” 26%

[그림11] 국정 평가 변동(2019.7-2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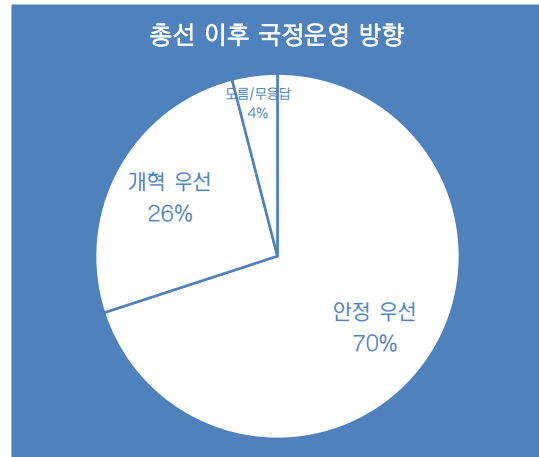


[그림12] 총선 민주당 180석 평가(2020.4월)



시사인 · 한국리서치(2020.7-2020.12)

[그림13] 총선 후 국정운영 기조(%): 안정우선



시사인 · 한국리서치(2020.7-2020.12)

4. 4.7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 확산 요인

① 이슈 요인: (1) 윤총장 사퇴 (2) 조국장관+검찰개혁 반발 (3) 부동산/LH 평가 등

[표1]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평가와 정권심판론(%)***

교차분석

		보궐 선거 구도 평가			전체
		안정론	심판론	모름/무응답	
윤석열 총장 사퇴 평가	긍정 평가(352명)	25.0	71.9	3.1	100.0
	부정 평가(319명)	61.4	28.8	9.7	100.0
	모름(129명)	30.2	35.7	34.1	100.0
전체 (800명)		40.4	48.9	10.8	100.0

주***: 카이제곱 검정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유의(p<0.01)

KBS-한국리서치(2021.3.8-9)

[표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권심판론(%)***

교차분석

		보궐 선거 구도 평가			전체
		안정론	심판론	모름/무응답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긍정 평가(130명)	88.5	7.7	3.8	100.0
	부정 평가(633명)	30.5	59.4	10.1	100.0
	모름(37명)	40.5	13.5	45.9	100.0
전체 (800명)		40.4	48.9	10.8	100.0

주***: 카이제곱 검정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유의(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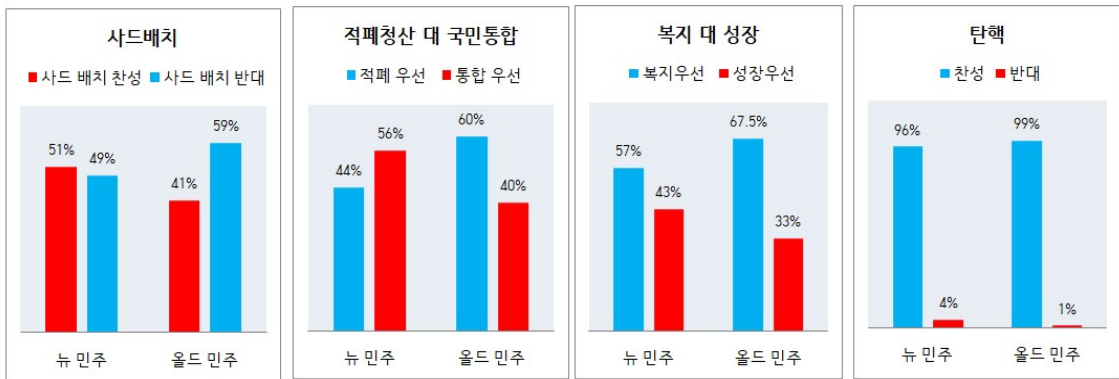
KBS-한국리서치(2021.3.8-9)

- 뉴민주층 선호하는 이슈 Priming의 실패: 올드민주는 검찰개혁 우선, 뉴민주층은 코로나/부동산
 - 올드민주와 뉴민주의 정책 순위 충돌: 뉴민주층은 적폐청산보다 통합 우선, 이질성 유발 이슈 부각(priming)하면 지지층 균열 불가피 → 적폐청산/검찰개혁 이슈는 뉴민주 이탈요인
 - 무당파/중도층: 검찰개혁 의제 후순위, 민생 의제 우선

[그림13] 올드민주 vs 뉴민주의 차이: 이질성 부각 이슈 강화되면 지지층 균여

New Democrats는 누구인가? (Old Democrats와 이질성: 중도-보수성향)

- 탄핵/복지에는 한 목소리, 사드 찬성/통합에는 이견



출처: EAI-한국리서치 KEPS 패널조사 (2017) (x²검정: *90%, ** 95%, ***99% 신뢰수준 유의)

[표3] 정치성향별 선호하는 국정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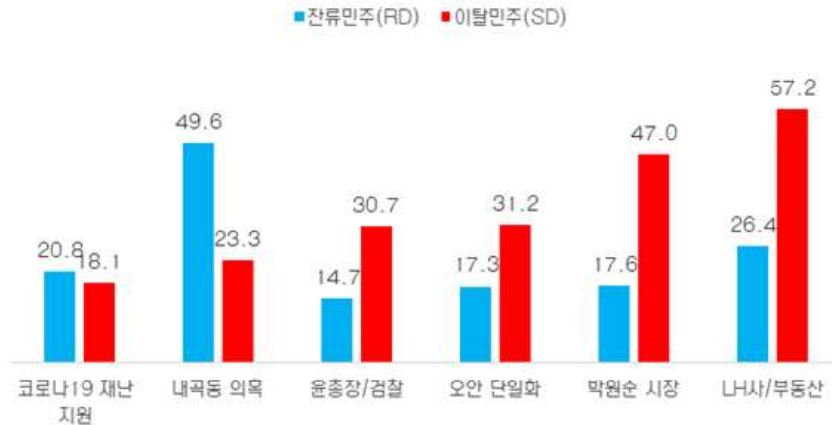
최우선 국정과제 지시정당	일자리 창출	검찰/언론 권력기관 개혁	집값 안정	남북관 계 개선	한미동 맹 강화	협치의 강화	복지 확대	코로나 19 대응	기타	모름/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12.4	31.6	17.4	2.2	2.6	0.7	2.3	29.0	1.1	0.7
국민의힘	17.7	3.5	24.0	0.9	8.5	6.1	1.0	35.0	2.0	1.3
정의당	18.1	17.8	11.0	2.7	2.8	3.8	1.2	40.9	1.5	0.0
국민의당	13.2	9.9	32.9	0.0	6.8	1.8	2.7	29.5	1.5	1.8
열린민주당	13.7	28.7	9.7	0.0	0.0	2.1	4.5	38.8	0.0	2.7
그 외 다른 정당	11.1	11.1	17.0	2.1	15.3	0.0	6.0	33.1	4.4	0.0
무당파	20.6	6.5	19.6	0.0	3.6	5.1	3.0	37.5	2.3	1.7
이념성향										
진보	15.8	29.7	14.8	2.4	2.4	0.3	1.9	31.5	1.2	0.0
중도	15.2	12.7	19.2	1.0	3.6	4.1	3.1	38.9	1.3	0.9
보수	14.5	15.2	24.7	0.7	10.3	4.5	1.4	25.1	2.8	0.7

② 태도: 네가티브 캠페인(내곡동 이슈)이 정부여당의 오만, 무능, 무책임 이미지 강화

■ 정부여당,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 대신 네가티브 캠페인

- 보궐선거에 영향 미친 이슈: 이탈민주층(총선에서 민주당지지, 보궐선거 지지철회)에서는 LH/부동산, 박시정 성추문, 오/안 후보 단일화, 윤총장사퇴/검찰 개혁 순
- 잔류민주층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 이슈 영향 커,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

[그림14] 잔류민주 대 이탈민주층의 투표영향 이슈



자료: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조사(2021.3.27.-28)

5. 4.7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일까?

① 차기 대선 구도의 가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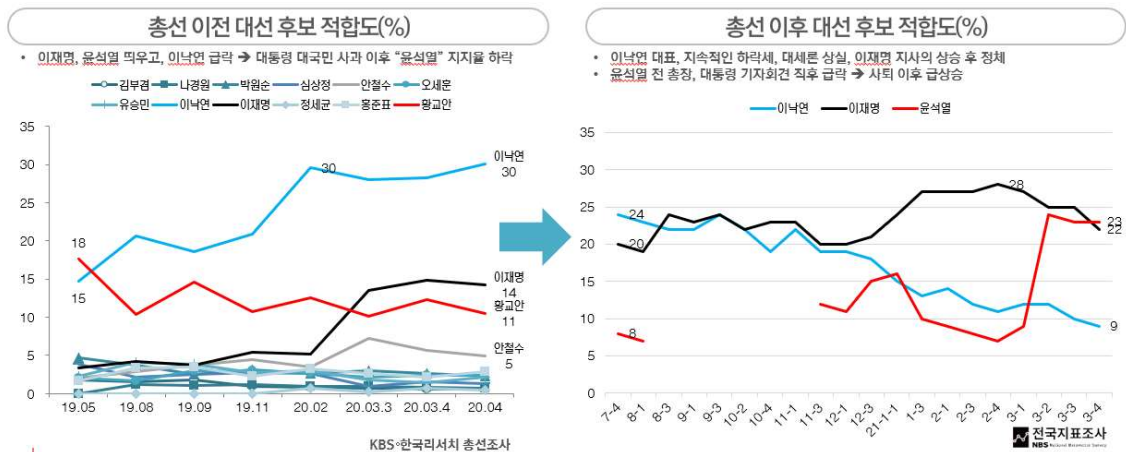
■ 여당 후보

- 강한 여권 후보 생존: 이재명 지사(비문/민주당 비주류 후보)의 존재(MB 정부심판론 고조 되었지만 박후보 당선과 유사한 사례)
- 정권심판론 상승과정에서 현직자 계승전략 펼친 이낙연 대표 지지율 하락

■ 야권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 부상

- 제1야당 후보 중 경쟁력 있는 후보의 부재,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되지 않은 경쟁력

[그림15] 총선 전후 차기 대선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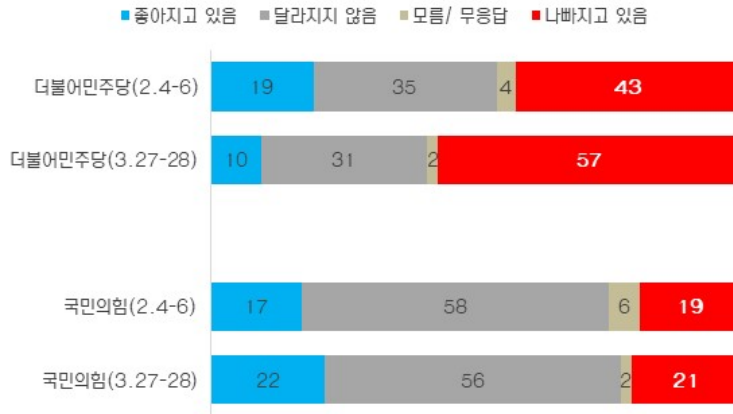


② 국민의힘, 대안정당으로서의 신뢰회복은 미흡

■ 보궐선거 대응: 국민의힘 인식개선 효과보다 여당 심판론의 반사이익 효과 커

■ 잔류보수/이탈보수 인식격차 큰 탄핵찬반, 반복지/반복노선 고수하면 개종보수 복원에 한계

[그림16] 선거 전 양당 호감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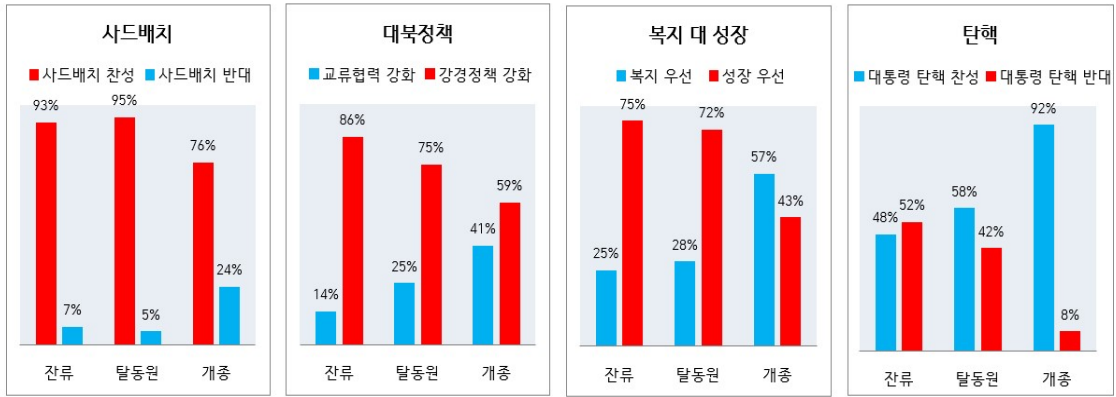


[그림17] 잔류보수와 스윙보수의 인식 차이

Swing Conservatives는 누구인가?

- 탄핵/복지에는 이견, 사드 배치 / 통합 우선론은 잔류 보수층과 유사

정 현울 강 우창, 2017. "콘크리트 보수층의 균열: 스윙보수층 등장의 원인과 결과." 강원택(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6: 촛불집회, 탄핵 정국과 19대 대통령선거> 서울: 통아시아연구원



통계로 본 주식

정윤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1. 이익률은 복리로 계산됨. 기하평균의 개념 및 특징. (예시1: 첫해 9% 이익, 둘째해 11% 이익이면, 첫해 10%, 둘째해 10% 이익보다 이익이 적음. 예시2: 첫해10%손해, 둘째해 10% 이익, 또는 첫해 10%이익, 둘째해 10% 손해라면 결론적으로 원금1% 손해. 10년간 10% 평균 이익시 159% 이익)

1.1. 월적립식 투자시 복리계산: 매월말 100만원 투자시

A. 연수익률15% 가정.

- 10년투자: 원금 1억2천,복리수익:1억5천5백, 합2억7천5백.
- 20년투자: 원금 2억4천,복리수익:12억5천7백, 합14억9천7백.
- 30년투자: 원금 3억6천,복리수익:65억6천3백, 합69억2천3백.
- 40년투자: 원금 4억8천,복리수익:305억4천, 합310억2천.

B. 연수익률10% 가정.

- 10년투자: 원금 1억2천,복리수익: 8천4백, 합2억 5백.
- 20년투자: 원금 2억4천,복리수익:5억1천9백, 합7억5천9백.
- 30년투자: 원금 3억6천,복리수익:19억, 합22억6천.
- 40년투자: 원금 4억8천,복리수익:58억4천4백, 합63억2천4백.

(워렌버핏:재산의 90%이상 65세 이후 형성.므두셀라 기법.기대수명

(2018년통계청생명표).남79.7세.여85.7세) 100세=>현재20세는 3중1,30세는넷중1,40세는5중1,50세는 7중1명 정도 100세를 살 것(인구통계.박유성교수)

2. 장기 적립식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 비전문가라면 개별주식

보다 인덱스가 편하다.

개별주식은 장기전망 어려움.

- 2020년top10(삼전,sk하닉,삼바,네이버,셀트,lg화학,삼성sdi,lg생건, 카카오,현대차)
- 2000년(삼전,sk텔리콤,kt,한전,포스코,KT&G,기아차,현대차,삼성전기,삼성증권)
- 1990년(한전,포스코,한일은행,제일은행,조흥은행,상업은행,서울신탁은행,신한은행,삼전,대우)
- 20년전.미국10(MSFT, GE, Exxon, Walmart, citi, Intel, BP, Nokia등)
- 인덱스투자: S&P500, 나스닥100 등 인덱스 펀드나 etf는 실적이 안 좋으면 편출당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편입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므로 구조적으로 장기 우상향.
- 그렇다면 KOSPI100은?=> 한국인구구조 추이를 살펴봐야 함.

3. 한국인구통계) 통계청 자료 기반

A.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8년부터 감소. 2020년 3579만명. 2025년 3415만명.(-164만명, 대전시인구임) 2030년 3223만명, 2040년 2703만명. (출산율 하락으로 유소년 인구 급감&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결과) 2020년부터 인구자연 감소시작.

B. 출산통계

1990년 65만, 2000년 63만, 2010년 47만, 2018년 33만,2019년 30만, 2020년 27만(출산율0.84) (2020년.대입정원:55만)20년후 폐교 대학수? (저출산예산.2020년.37조투입) 초중고 마찬가지. *고령화: 2026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20%이상) *연금:사학.군인.공무원.국

민연금등 (적자전환.고갈의 순서를 맞이할 것)*삼전.정도30년후지속?

현재 분위기는 뜨겁다. 그러나 몇 년,10년,20년후에는? 국내주식매도행렬이 이어질 수 있음.

- 2021년 국민연금: 자산배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6.8%, 해외주식 25.1%, 국내채권 37.9%, 해외채권 7.0%, 대체자산 13.2%) 2025년 국내주식 15%축소.
- 사학연금: 현재 국내주식18.6%. 2022년 17.5%, 2023년 16.4%, 2024년 15%, 2025년 14.5% 등으로 축소
- 공무원연금: 현재.국내주식18.5%. 2025년 국내주식 10%까지 내릴 계획. (이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
- 내뽏폴은어떤가? 국내주식비율이?? (학생들의 부모님세대.국내주식100%ok.주식없어도ok.이미 부동산으로 은퇴준비 어느정도됨.)

4. 미국인구) 고령화는 마찬가지로.

인구는 향후40년증가예상.기축통화.에너지거의자급.식량자급률거의 100%. 미국시총.세계시총.약40%(2020년) 한국약2~3%

4.1. 미국인덱스etf:(10년평균수익률spy:12%, qqq:17%)

워렌버핏 제안. (90%,10%). 미국인덱스에 장기간 월적립식으로 투자.오늘의 결론임.

5. 기타 사항

5.1. 세금.

한국에 상장된 미국지수추종etf: 15.4%(2천만원이상종부세) 미국

주식 250비과세.22%. 부부양도시 10년간6억비과세. 양도가액이 매수가. 향후매도시 매도시점 정후60일 평균가로 매도가 결정.

2023년부터 5천만원까지 국내주식비과세(대주주아닐경우,단일종목10억이하,지분1%이하) 5천이상3억이하20%,3억이상25%

5.2. 중소형주매매 포트폴리오5~10%이내.

안해도되나못버티면매매(공부하다가 발견시, 왜 좋아보이는가? 생각할 필요. 최근 많이 올라서? 매수금지. 기본적재무제표. 향후섹터전망.대주주비율? 국민연금비율은?외국인비율?최근급등여부. 대표의비전? 또는 가격이 저렴?보조지표활용.분할매수-변동성헛지.//경기순환주? 테마주? 향후 유망주?등은 관심가져볼만하나신경쓰임. 전업투자.전문가.주식발굴 안목이 있어야 가능.) 변동성은확률분포. 꼬리가두텁다.정규분포x.나심탈레브.블랙스완.

5.3. 코인.가상화폐(시총큰것으로) 포트폴리오5~10% 이내.

복리효과 체험함.3년5배. 코인은 2022년1월부터과세대상. (양도차익.종소세.기타소득.250비과세후 22%어떠한 다른 소득과도 합산X. 누진세X)해외거래소 이용시 과세불가.올해이전필요.해외거래소5억 이상보유시.국세청신고.미신고시최대20%과태료.포텐있음.삼전30년전.1/300배.지금매수해도 되나? =>5%~10%이내를 분할매수. 공포심 생기면 매수싸인.

5.4. 학생들.취업후 주식투자 필수.미리떼어서투자.나머지는 인조이.

자본주의특징.폐해?부익부빈익빈.30년 일하는 과정은 반드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금융문맹no.(금수저만ok,세후30억?) 학교에서가르치지않는(신)자본주의.이유는? 노예화(x)최신(o). 2000년.2008년경제위기이후.코로나이후.

5.5. 마인드컨트롤 (단기급상승시 탐욕적 매수, 이후 조정, 단기급락시 공포로 매도, 이후 상승)

이성적 사고가 작동 못할 경우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의 확률 하락.
수익률 하락의 결과로 나타남. 조급한 만회심리는 추가손실로 이어짐. 마인드컨트롤은 책을 통한 공부와 훈련으로.(교보문고경제경영분야.베스트셀러.학교도서관대출.)

5.6.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는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10년 더 살면 10년치연금 추가.복리의 혜택을 더 누림.버핏65세사망했다면10%의재산)

5.7. 근로소득으로 노후대비는 평생 힘들게 일해야함.

돈의노예. 자본소득으로 노후대비는 삶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해줌.(10%,30년.월50만원가정시11억.월복리계산기이용.)YOLO의 삶이 가능.